배꽃 정원 행사 피드백

42기 웹개발팀 김지수

수습운영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배꽃 정원 행사를 크게 준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만으로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배꽃 정원의 컨셉을 정하는 것부터, 기업과 컨텍하여 정말 많은 협찬을 받고 배꽃 정원 행사를 진행시키는 일이 너무 새로웠고 신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았던 협찬품들은 하나하나 패키징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화이언 운영진들과 함께 서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는 과정에서 뿌듯함과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웹개발팀 정운영진들은 정말 밤을 세워가며 배꽃 정원 웹페이지를 만들고 코딩하였는데 정말 개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무 멋있었고 내년에 나도 저 자리에서 같이 웹페이지를 코딩하고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습 운영진이였기 때문에 배꽃 정원에 대한 준비보다는 행사 당일에 활동을 더 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 패키징 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750개를 미리 했을 때 이를 보관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다음 배꽃 정원 행사때는 당일날 패키징을 이렇게 많이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미리미리 패키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행사가 시작되려는 시간보다 많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 중간에 수업을 다녀오기 전에는 행사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수업을 다녀와보니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다들 처음 진행하는 오프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곧 자리를 잡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주었기 때문에 이번 배꽃 정원 행사는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케이프의 진행을 맡을 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부스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지만, 수업 후 입장 부스에서 사람들 입장하는 것을 도와주며 환영키트를 나눠줄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했고 아침에 힘들게 패키징한 입장선물을 보며 감사하다고 하시는 벗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다음 배꽃 정원 때에는 정운영진으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배꽃 정원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꽃 정원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이화이언 운영진분들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